

도 정 질 문 서

이 대 원 의원

한나라당 청주시 제2선거구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50만 도민의 행복과 충청북도 번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는 조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여러분의 성원에 비해 미흡한 점을 스스로 반성하고, 이런 인식을 계기로 앞으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충북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여 지난 9월 주민투표를 실시한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는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통합 여부를 직접 듣는 절차로서 성숙된 민주시민으로서 의견을 표현하되, 상호 이해와 화합 속에 이루어져야 했음에도 통합 찬성이나 반대를 지지하는 주민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된 것에 대해 청주지역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도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이제 결과가 확정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투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찬반 과정에서 노정된 대립 분위기를 서로 포용하고 화합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단합된 주민 의지야말로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

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도심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심공동화의 문제와 더불어 전래 재래시장의 위기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도심공동화를 해소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심공동화가 진행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도심외곽지역에 주거형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조성에 따른 주거인구의 분산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며,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1996년부터 대형

유통매장들이 도시의 외곽에 입점함에 따라 쇼핑편리성을 추구하는 구매패턴의 변화와 맞물려서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좀더 심사숙고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본다면

도시개발상 우선 당장은 건축비가 적게 드는 외곽지역이 유리할 수 있지만 국토이용의 차원에서 볼 때 도심이 공동화 되면 지속적인 분산화 정책이 꼭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유통매장의 무분별한 입점허가에 따라 도심공동화를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무너지게 되고 이에 전래재래시장의 중소상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예로 청주시의 경우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도심의 3대 유통시장 중 육거리 종합시장을 제외한 중앙시장과 서문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위협받을 정도로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곧 완공될 예정인 중원특급호텔내의 대형유통매점 입점, 대농부지내 현대백화점 입점, 구 삼화물산 부지 대형점 활용문제 등과 경찰청사 이전에 따른 유통인구 이동문제가 맞물려 도심의 핵심 가두상권인 성안길 상권의 존폐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러, 도심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며 위기감은 극에 이르러 도심 가두상권, 전래재래시장에서 동네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앞날의 생계를 걱정하느라 전전긍긍하며 애타는 심정은 무엇에 비유할 바 없고, 또 이 문제가 비단 청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웬만한 시군의 상권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우리 도에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수

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대규모 유통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 중심지의 핵심 상권 개발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도심 공동화와 전래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와 지자체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수성에 맞는 시가지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하며

둘째, 소비자와 상인관련 단체, 자치단체를 총망라하여 전래재래시장과 주변도심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도심균형발전협의회□의 구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대형유통매장의 신규입점이나 제반 행정개선을 위한 허가시 도심상권에 위치한 전래재래시장과 연계한 공동발전프로그램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고,

넷째, 도심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그동안 전래재래시장의 지원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의 차별화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관계관계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관련입니다.

21세기 세계는 □문명사적 전환□으로 지칭되는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화, 지식기반사회화, 디지털화, 고령화 등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고도의 지식, 전문성, 청렴성 등을 한 단계 높여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능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계발시키고, 근무의욕을 앙양하면서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불어 넣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정신자세, 즉 사기 진작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기가 높은 직장은 ① 임무를 열성적으로 수행하려고 하고, ② 조직과 지도자에게 충성심을 발휘하며, ③ 담당직무에 만족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④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으나

사기가 낮은 직장은 ① 능률과 생산성이 저하되고, ② 직원과 관리자간에 불화가 일어나며,

③ 업무를 기피하고 흥미와 창의력이 현저히 줄어들어 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면 우선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직원후생복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표참고) 2005년 도청 공무원의 경우 후생복지비용으로 1인당 연간 269천원을 지원한 반면 교육청공무원은 540천원을 지원하여 충청북도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중앙부처 또한 이미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추진하여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향후 충청북도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비용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기진작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공무원의 승진, 보수인상, 후생복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매년 얼마나 향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향후 매년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할 의향은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관련 예산 비교표 (2005년 기준)

구 분	도청 (선택적 복지미실시)	교육청 (선택적 복지제 실시)
1인 연간예산액	269 천원	540 천원
산출기초	연간예산 697,310천원/2,595명	연간예산액 5,325,264천원(6개월분)/16,436명
수혜내용	영유아보육비, 직원 종합검진비, 직원능력 개발비, 직원단체보험료 휴양콘도구입비, 해외 배낭연수지원	·필수항목 : 생명/상해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자율항목 진료비, 건강진단, 건강시설 이용, 학원수강, 연수비, 도서구입, 콘도이용, 레포츠, 여행비용, 공연관람, 보육시 설이용, 자녀교육비, 부모 부양비 등

※ 선택적복지제도란 현행 공무원후생복지는 공무원 개인이 원하는 복지수요와 관계없이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마련되어 개인의 욕구충족에 미흡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이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었으며, 따라서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포인트) 범위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은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고 자율항목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임(정부부처나 자치단체별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다음은 대중교통업계의 서비스 만족도 제고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업계의 서비스 불만족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야기는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할 때면 늘 화제 거리가 되지만 그때만 지나면 우리 뇌리에서 멀어져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 모 기관에서 택시운전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발표한 결과를 들여다보면, 친절도 면에서는 불친절보다 친절하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으며, 불만사항으로는 짜증 섞인 말투가 가장 많고,

다음은 용모불량, 노약자 배려 외면 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약자에 대한 배려도는 양호와 불량이 비슷하게 나타나 있는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서비스의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시도의 사례를 드는 이유는 우리 도에서도 이렇게 공식적인 자료가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어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도내 시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업종에 근무하는 분들이 총 9,807명으로서 이 분들에게 대한 친절교육은 충청북도운수연수원에서 연간 2시간, 관련업체 자체에서 매월 2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택시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해보았는데 친절도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렇게 불친절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은 여러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형식적인 교육과 업계종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높이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업계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할 것과

둘째, 친절한 종사자에게는 표창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이러한 사업을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소비자 단체 등에 공모를 통하여 추진케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공감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청 소관으로서 교육감
공약사항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 김천호 교육감
께서 생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연속5회 우수교육청으로 선정
되었으며 청렴도 조사결과 전국 16개 시도중 1
위를 차지하는 등 혁혁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충
북교육의 자긍심과 명예를 크게 선양하였습니다.

고 김천호 교육감의 영전에 감사와 추모의 마
음을 바치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교육계 원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적비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
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기용 교육감께서는 도민들에게 ‘학생에게
최적화된 맞춤형교육으로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

3대 분야 6개영역 41개 실천과제를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말씀해 주시고, 고 김천호 교육감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사항은 무엇이고, 차별화된 공약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시도와 비교하여 충북특성에 맞는 선진 충북교육을 이끌어가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청주지역의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고교평준화 문제가 도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쟁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사안으로서, 최근 정부 내 교육 관료와 교육학자 그리고 일부 언론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면에 교육관련 단체 등은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 평준화 제도는 일명 '중3병'이라 불리던 고교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3. 6. 28일에 발표되었으며,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평준화 정책은 시행 초기의 긍정적 여론과 함께 그 성과에 대한 호의적 평가 등에 힘입어 1979년에는 청주지역에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평준화 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에서는 평준화정책 보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오던 중 1986년 정책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등에서 평준화 성과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을 계기로 평준화 정책의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학고 및 외국어고 신설 등 고교 유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특수 재능학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중·소도시지역에서는 지역실정과 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현재는 청주지역의 경우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학력의 신장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은 학생들의 능력을 똑같이 만들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을 평균적 수준으로 끌어 내리는 제도라고 하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의미 있는 학력의 차이가 없으며 학력 저하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둘째, 학교선택권의 보장측면에서 반대측은 평준화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 한다는 의견이며 찬성하는 입장은 평준화를 폐지해도 모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평준화정책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공교육으로서의 평등 교육측면에서 평준화는, 획일적인 평등교육으로 인재를 키우는데 부적합하다는데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넷째, 사학의 자율성 침해에 관해서도 고교 평준화 정책은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리는 등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백년지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학생 당사자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 사항중의 하나가 평준화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정책이 단시일 내에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세력에 의해 졸속으로 바뀌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육관계자, 특히 도민 모두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감께 질문 드립니다.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은 무엇인지, 현재 시행중인 이 정책에 대해 재고를 한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사평가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육이 중요하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사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아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사평가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국민들간에 많은 논란을 거듭하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평가제 실시에 대하여는 우선 대부분이 실시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떤 요소로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평가에 대한 문제는 교사 자신들은 물론이고 전 도민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사평가제에 대하여 어떠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 밝혀 주시고 교육감의 소신과 충청북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이며,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실업계고등학교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 및 직업구조가 다양화·전문화 됨에 따라 실업교육의 새로운 방향 정립이 요구되고 있어, 실업계고등학교의 체제, 교육과정, 교원문제, 시설·설비 등 실업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실업교육이 교육계, 산업 및 경제계 등 사회전반에서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 관련대학, 연구기관 등과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실업교육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개선대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능력보다 학벌이 사회적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학진학에 대한 맹목적인 욕구로 수요자의 다양한 교육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개선 실적도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회에서도 수차례 논의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실업계고교의 취업 및 진학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졸업자 31,545명 중 취업률이 38.23%, 동일계 진학률 38.09%,

비동일계 진학률이 21.03%로 나타나 있습니다.

실업계고교생 취업 및 진학실태

연 도 별	졸업자수 (명)	취업자수 (명)	취업률 (%)	진 학 자 수				진 학 륜 (%)
				동일계 (명)	비율 (졸업자 수대비)	비동일계 (명)	비율 (졸업자 수대비)	
계	31,545	12,060	38.23	12,018	38.09	6,635	21.03	59.13
2004학년도	6,883	2,230	32.40	3,078	44.72	1,562	22.69	67.12
2003학년도	7,667	2,837	37.00	2,932	38.24	1,771	23.09	61.34
2002학년도	7,974	2,849	35.73	3,104	38.92	1,753	21.98	60.91
2001학년도	9,021	4,144	45.94	2,904	32.19	1,549	17.17	49.36

학교별 취업 및 진학실태

연 도 별	학 교 별	졸업자수 (명)	취업자수 (명)	진학자수(명)	
				동일계	비동일계
2004학년도	제천농고	188	52	32	104
	충북인터넷고	343	86	133	124
	증평정보고	197	47	94	56
	충주상고	272	64	117	91
	현도정보고	272	87	58	127
	영동인터넷고	201	59	63	79
	청주여상	279	68	54	157
	대성여상	346	104	103	139
	충주여상	289	101	77	111
2003학년도	제천농고	203	64	41	98
	단양공고	119	33	49	37
	옥천상고	262	149	10	100
	충주상고	292	52	73	166
	영동인터넷고	215	77	37	101
	청주여상	310	75	94	141
	대성여상	399	144	104	151
	충주여상	338	100	54	149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짚어 보면 첫째, 연도별 취업률이 매년 줄어드는 점과 비동일계 진학률이 21.03%로서 보합 및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률 중 전공분야 및 비전공분야를 구분하고 진학자중 동일계와 비동일계를 구분하여 2년제 및 4년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별 취업 및 진학실태에 대한 표를 보면 취업률보다 비동일계 진학률이 월등히 높이나타나 있는 제천농고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에 대하여는 학교방침과 취업 및 진학지도 계

획 등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이러한 현상이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